그곳에 가고싶다.
비슬산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명산을 칭하면 바로 비슬산(琵瑟山)과 팔공산(八空山)을 말한다. 비슬산은 팔공산과 높이나 산세가 비슷하나 팔공산보다 비슬산이 훨씬 작은 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비슬산은 1083.6m인데 비해 팔공산이 1192.9m이니 두 산이 거의 같은 높이의 명산이다. 비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도군, 경산군 및 창녕군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비슬산의 모양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청도 쪽이나 현풍 쪽에서 봐야 제 모습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구 쪽에서 본 앞산을 비슬산의 전부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앞산은 비슬산 자락의 일부분이다. 비슬산을 현풍 쪽에서 보면 기묘함이 금강산에 비유할 만하고 청도 쪽에서 보면 웅장하기가 팔공산처럼 장중해 보인다.

그리고 정대 쪽에서 비슬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수만 평의 광활한 갈대밭이 대평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흔히 갈대밭하면 창녕의 명산인 화왕산을 일컫지만 이제 비슬산 정상에도 화왕산 갈대밭에 뒤지지 않은 광활한 갈대밭이 대평원을 이루고 있어 등산객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뿐만 아니라 봄철에는 소재사 쪽에서 비슬산 상봉으로 오르면 참꽃이 온 산을 불태우는 장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참꽃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소재사 앞을 지나 비슬산 휴양림을 거쳐 대견사지까지 차도가 잘 닦여져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비슬산을 가까이 두고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비슬산의 내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그중에 신라 흥덕왕 원년 도의가 쓴 유가사사적(瑜伽寺寺蹟)이란 책에서 산의 모습이 거문고와 같아서 비슬산(悲瑟山)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일설에 비슬산은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비슬산이라고 했다한다.

비슬산의 동쪽기슭은 완만한 반면 서쪽기슭은 경사지고 큰 바위들이 계곡을 따라 무더기로 굴러 내린 현상들로 인해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비슬산에 천연기념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바로 암괴류가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암괴류란 큰 자갈 내지 바위크기의 둥글거나 각진 암석덩어리들이 집단적으로 산 사면이나 골짜기에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쌓인 것을 말하는데 비슬산 암괴류는 지금으로부터 약1~10만년 전인 주빙하기 후대에 형성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발달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화강암 지형에서는 보기 드물고 가치가 매우 높다. 비슬산 암괴류는 대견사지 부근과 등산로 건너편의 해발 약 천미터 부근에서 시작하여 등산로를 중심으로 양쪽 사면에서 2개의 암괴류가 각각 다른 곳에서 시작하여 해발 750미터 부근에서 합류하여 내려오면서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 분포 암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식물 분포는 포산(숲으로 덮힌 산)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원시림은 없으나 해발 600m 이상 높이 올라가면 토양층이 비교적 잘 발달한 지역에서 신갈나무군락이 나타나는데 이 군락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은 조록싸리, 꽃며느리밥풀, 대사초, 큰개별꽃 등이 눈길을 끈다. 비슬산 남쪽 능선을 따라가면 능선 일대에 풀밭이 전개되는데 그 곳에서 타래난초, 은방울꽃, 원추리, 여로, 오이풀, 범꼬리 등을 관찰할 수 있고 사진동아리들의 식물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주변 볼 만한 사찰로는 대견사지, 용천사, 유가사, 용연사 및 소재사가 있다. 비슬산 중턱에 남아 있는 절터인 대견사지(大見寺址)는 절의 창건 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9세기 통일신라시대로만 추정하고 있다. 중국 당나라 황제가 절을 짓기 위하여 명당을 찾아다니다 신라 현덕왕 때 이곳 비슬산에 절터를 잡고, 절과 3층 석탑을 세웠고, 대국에서 본 절이라 하여, 대견사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대견사는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 지금은 축대와 빈터만 있으며, 사찰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쌓은 듯한 남아 있는 축대가 절터 남쪽 절벽에 길이 38m, 높이 7m 가량 남아 있다. 대견사지의 남쪽 절벽 위에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데 이 석탑은 붕괴되어 흩어져 있던 석재를 1986년 달성군에서 복원한 것이다.

각북면 오산동 입구에 솟아 있는 비슬산 중복에 자리한 용천사(湧泉寺)는 신라 문무왕 때의 고승인 의상법사가 670년(신라 문무왕10년)에 창건하여 절 이름을 옥천사라 하였다고 한다. 당시 건립된 건물들은 큰 건물이 17채가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며 불교 전성시대에는 승려가 천 여 명이나 되었고 암자가 47개소가 있었다고 하나 오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단지 도성암만 남아있다.
신라 흥덕왕 2년(827) 도성국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인 유가사(瑜伽寺)는 비슬산의 바위 모습이 아름다운 구슬과 부처의 형상과 같다하여 옥유(瑜), 절가(伽)자를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 비슬산의 주봉인 대견봉 밑 내산에 위치하고 있는 유가사는 천년의 역사와 더불어 고찰의 풍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빼어난 산수와 절경은 참배객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옥포면 방향에는 신라 말 보양 선사가 창건한 용연사(龍淵寺)가 있으며, 현재의 재난을 없애 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소재사(消災寺)는 비슬산 남쪽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여 온다.

글 류칠하 총무과장